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행복한 불편

“소비 안부를 묻습니다.”

감자 줄기를 들어올리면 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려나오듯, 소비라는 단순한 행동은 관계와 노동,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점점 더 편리해지는 요즘, 그 소비와 연결된 사람과 생명은 안녕한가요? 나의 편리와 권리를 양보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을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네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러 보겠느냐?
/ 예레미야 15:5

배송은 안녕한가요?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 故정슬기 님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73시간이었습니다.

느린 배송 받기
지역 상권 이용하기

자연은 안녕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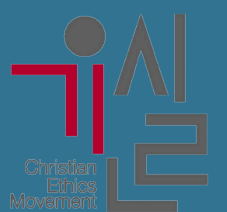
국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558억 개입니다. 1인당 1,312개 꼴입니다.

플라스틱 포장 안 하기
필요한 만큼 사기

동물은 안녕한가요?

2022년, 국내에서 499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크루얼티 프리 사용하기
동물실험 대안 알아보기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은 전국기윤실협의회와 200여 교회가 함께합니다.
(광주기윤실, 대구기윤실, 대전기윤실, 부산기윤실, 인천기윤실, 익산기윤실, 전남기윤실, 전주기윤실, 진주기윤실, 정읍기윤실, 청주기윤실, LA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함께해주세요!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cemk.org 페이스북 @giyunsil 인스타그램 @giyunsil



기윤실 후원하기